

금싸라기 대접받는 비상장주... 성장성·세금 주의해야

IPO시장 과열에 주식 선점 경쟁 거래플랫폼 늘어 편의·안정성 ↑ “상장 불발시 리스크 고려해야”



/유투이미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 투자자 사이에서 화두다. 카카오펀트 등 상장 앞둔 대형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른 비상장 우량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정황으로 풀이된다. 기업공개(IPO) 시장 과열로 공모주를 받기 어려워지자 주식을 선점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외에도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며 이 전보다 거래 방법도 편리해진 데다 거래안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K-OTC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동기(43억1000만원)보다 절반가량(21억6000만원) 늘어난 64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 기록으로 비상장 대형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확한 규모가 집계되지 않지만 다른

비상장 주식 플랫폼 역시 거래가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C가 공인 받은 장외주식시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른 플랫폼보다 적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비상장 주식거래 50% ↑

K-OTC 이외의 플랫폼은 크게 7개로 압축된다.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IPO 주식 관련 정보가 게시된 종합정보 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캡박스가 운영하는 엔젤리,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비상장, 코스콤의 비마이유니콘, 스타트업 PSX가 신한 금융투자사와 연계해 운영하는 서울거래소, 유안타증권의 비상장레이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네고스탁 등이다.

대부분 매수자와 매도자 간 1대 1 협의를 통해 거래된다. 개인끼리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정도로 명확한 시세가 없다.

각 플랫폼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IP

O 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증시에 들어온 유동성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혜택, 동학개미운동과 IPO 전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거래정지나 투자주의 경보 등 시장 감시시스템이 없어 주가 급락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묻지마 투자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들도 적지 않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황새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다 보니 장외거래를 통해 미리 주식을 확보해두자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치솟은 상태에서 장외 거래를 하면 수

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상장 일정이 구체화됐음에도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12%가량 하락했다.

공시 의무가 없으므로 정확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힘든 데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크다.

오현석 엔젤리 대표도 “장외시장에서 주식의 희소성이 상장 이후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얻는 게 아니니 회사의 전망과 주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세금도 생각할 요인이다. 비상장 주식 수익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는다. 올해 상반기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8월 말까지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어려운 펀드투자, ‘마스터Wrap’에 맡기세요”

Advertorial Corn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상품부서 협업 정기 모니터링·자산 리밸런싱 실시

메리츠증권이 국내외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Wrap’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다.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이후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매월 자산배분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



모델이 ‘메리츠펀드마스터Wrap’ 판매를 알리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점이 국내외의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분양

내달 2일 특별공급 시작

한화건설은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6 일원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포레나 천안신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6~159㎡, 총 60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물량의 약 80%가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

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76㎡ 123가구 ▲84㎡A 195가구 ▲84㎡B 27가구 ▲104㎡ 98가구 ▲113㎡A 128가구 ▲113㎡B 28가구 ▲159㎡A 2가구 ▲159㎡B 1가구다.

단지가 조성되는 신두정 일대는 현재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1만여 가구의 대규모 신중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포레나 천안신부는 2019년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포레나 천안두정과 함께 신두정지구 내에서 약 1700가

구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신두정 핵심 입지에, 10개 단지 완판행진으로 검증된 ‘포레나’의 상품성이 더해져 잠재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레나 천안두정에 이어 성공적인 분양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일정은 다음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해당지역과 4일 기타지역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큐라클, 코스닥 입성... “혁신신약 기업 도약”

“환자들의 삶의 질 높이고 사회 공헌”

혈관질환 신약개발 전문기업 큐라클이 22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권영근 큐라클 이사회 의장은 이날 상장 기념식에서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고품질 혈관 관련 난치 질환의 선도적 혁신 신약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큐라클은 공모자금을 통해 임상개발이 진행 중인 CU06-RE(당뇨황반부종 치료제), CU01(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CU03(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이전과 제품 출시를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약 개발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또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를 통합하고 해외 임상개발팀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R&D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기반을 건설해 다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14일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을 통해 10조3127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은 바 있다. 경쟁률은 1546.90대



22일 김명화 큐라클 대표가 서울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서 코스닥 상장 기념식을 마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1을 기록했다. 지난 7월과 8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1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최상단인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533억3300만원이다.

한편 큐라클은 지난해 영업손실 78억 5300만원, 당기순손실 286억1000만원을 냈다. 현재 자본금은 66억7800만원이다. 주요주주로 권영근(13.54%) 외 4인이 지분 17.36%를 보유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교보증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교보증권은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동의 하에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교보증권 등 5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올해 7월초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으로 디지털신사업기획부와 디지털신사업추진부로 구성된 디지털신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임직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네이밍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왔다.

/송태화 기자